

# 장성·보성 이어 장흥 군수까지 줄줄이 '당선 무효' 위기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및 개인비리로 줄줄이 '당선 무효'를 선고받으면서 행정공백과 함께 올 연말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혐의를 선고 받은 전남 단체장은 모두 5명. 여기에 개인비리로 구속 기소된 사례까지 포함시킬 경우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2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6명이 당선 무효화되거나 단체장직 상실의 위기에 처한 상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9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화에 1억원의 현금을 한 김인구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

다는 법률에 따라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또한 장성군수와 보성군수는 단체장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중해 보성군수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유두석 장성군수는 상대 후보 비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 있다.

당사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이정섭 담양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22일 구속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강 군수는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하

수중발전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돼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억원 이상 뇌물 수수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선무효가 불가피하다.

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앞서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형준 화순군수는 재판 도중 사직했고, 고길호 신안군수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전남지역 단체장 3~4곳이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당사자에 대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어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 전남지역 단체장 3~4곳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개헌, 낡은 정치 청산의 핵심”

**이백만 청와대 홍보특보**

이백만 청와대 홍보특보는 29일 “개헌은 낡은 정치 청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홍보특보는 이날 광주 조선대학교 법과대에서 가진 ‘경제선진화와 정치개혁’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낡은 정치 청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이자 대국민 약속이고, 이는 낡은 정치질서를 바로 잡지 않는 한 한국은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시대정신의 결정체고,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가선진화”라며 “국가

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난 87년 만들어진 헌법을 고수하는 것은 대확신입생에게 고등학교 때의 교칙을 지키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원포인트 개헌은 기본권, 영토조항, 통일문제 등 새 이념이나 가치를 새 헌법에 수용하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실질적 내용을 살현하는 구조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의 책임정치 강화, 경제정책 추진체계의 안정화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얇은 수, 千·金의 단식농성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열린우리당 전직 의장 출신인 천정배·김근태 의원이 지난 25일과 27일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잇따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농성에 들어간 천 의원은 “한미 FTA는 주가만 하는 조공협상”이라며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이 정권권을 애국세력과 대국세력으로 나누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차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의원은 “한미 FTA 협상 결과는 참상이고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한미 FTA 협상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단식 농성을 바라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우선, 지적되는 것은 시점이다. 당장 하루 뒤면 한미 FTA 협상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단식 농성은 제스처로밖에 안보인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무역촉진관화에 맞춰 올해 3월 말까지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뒤늦은 단식 농성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지난해 7월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한대가 될 것”이라는 정부 합동 담화문에 서명한 적이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지난해 9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리당 소속의원 13명 전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단식 농성이 ‘정치용’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 FTA가 결정되면 단식 농성의 의미는 더욱 빛나게 되고 타결되더라도 적극 반대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양수점장 포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이 범여권의 대선 주자라는 점에서 국회 인준 과정에서 반(FX) 여론을 결집을 통한 지지를 상승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대선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론의 뜨거운 논쟁을 의식한 듯 29일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해 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색한 입장을 나타냈으며 천 의원은 “정부가 협상을 중단한다면 대선 출마도 포기하겠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시기와 일관성이라는 단추를 잘못 꿴다는 점에서 이들의 단식 농성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들이 열린우리당의 전직 의장이라는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여론의 바다를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당 해체라는 초유의 수순을 밟고 있는 실권세력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해 씁쓸하다.

/tuim@kwangju.co.kr

## ‘6·15 공동위 광주전남본부’ 출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29일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소회의실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15공동위 광주전남본부 대표자 총회 및 출범기념식’을 가졌다.

6·15공동위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총회를 통해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6·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결산한 뒤, 2007년 임원단 인선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전남본부는 또 출범기념식을 갖고, 3개 지부 108개 단체들의 6·15공동위에 대한 홍보활동 방안과 개별 단체들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北에 의류 주고 지하자원 받는다

###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남북 경공업 협력 이행 기구' 내달 발족



당시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남측이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이를 지하자원으로 상환한다'고 합의하면서 합의서 발표 1개월 이

내에 이행기구를 지정해 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김중태 남북경제협력분장장은 “상반기 중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행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4월 중 설립은 되지만 공식 출범은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진 뒤 합의서가 발효되는데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장관은 금강산에 개성공단과 같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금강산관리위원회는 금강산관광지구에 필요한 행정기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구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준칙을 제정하고 기업창설 승인, 영업허가, 소방·치안 등 행정업무 등을 담당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김홍업 공천 당선가능성·당 발전 모두 고려”

**장 상 민주당 대표경선 후보**

장 상 민주당 대표경선 후보는 29일 “김홍업씨 무안·신안 공천은 당선가능성과 당 발전 두 가지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공당으로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고뇌의 결단으로 무안과 신안군민이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대표는 원내외의 주류와 비주류를 아우를 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자신이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수 년동안 얼굴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와 민주당의 지지도가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운운하고 있다”면서 “돈키호테는 아니지만 관행화된 것들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제4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김홍업 예비후보 등이 신청한 ‘김홍업씨 전락공천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第18期) 決算公告

#### 대 차 대 조 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잔액	과목	잔액
<b>자 산</b>		<b>부 채 와 자 본</b>	
1. 유 동 자 산	61,400,695,460	1. 유 동 부 채	24,989,691,989
(1) 당 좌 자 산	58,089,039,980	1. 매 입 채	8,987,396,385
2. 연 기 금 융 상 품	16,228,841,268	2. 단 기 차 입 금	26,000,000
3. 매 도 가 능 중 권	20,000,000,000	3. 미 지 지 급	6,570,518,480
4. 공 사 미 수	30,410,000	4. 공 사 선 수	8,113,811,809
5. 단 기 대 여	13,179,075,135	5. 예 지 금	34,855,049
6. 미 수 수 리	7,100,000,000	6. 미 지 지 급 비 용	31,772,266
7. 미 수 수 리	1,303,154,310	7. 미 지 지 급 비 용	1,226,338,000
8. 선 수 수 리	159,452,055		
9. 선 금 비 용	57,903,000	<b>II. 고 정 자 산</b>	2,135,615,655
(2) 재 고 자 산	41,204,134	1. 장 기 보 증	534,800,000
1. 유 동 자 산	3,801,655,680	2. 회 계 적 비 용	1,623,995,605
2. 공 사 원 재 료	328,784,500	3. 미 지 지 급 비 용	▲23,179,950
<b>II. 고 정 자 산</b>	13,908,304,631	<b>부 채 총 계</b>	27,125,307,644
1. 장 기 금 융 상 품	9,825,572,645	<b>자 본</b>	
2. 매 도 가 능 중 권	5,000,000	I. 자 본	18,080,000,000
3. 보 증 자 산	153,138,900	1. 보 통 주 자 본	18,080,000,000
4. 기 타 의 무 자 산	4,082,371,986	<b>II. 이 의 임 여 금</b>	30,103,692,447
(2) 유 련 자 산	1,429,117,660	1. 기 업 합 리 화 적 합	81,438,863
1. 트 리 블	3,403,983,974	2. 인 의 적 합	3,250,000,000
2. 전 출	▲816,956,149	3. 기 업 발전 적 합	2,000,000,000
3. 차 량 운 반 구	392,243,923	4. 처 분 전 이 익 임 여 금	24,772,253,584
4. 기 타 의 무 자 산	▲375,905,615	(당기순이익: 7,068,662,712)	
기 타 의 무 자 산	2,481,089,576	<b>자 본 총 계</b>	48,183,692,447
기 타 의 무 자 산	▲2,430,841,373		
<b>자 산 총 계</b>	75,309,000,091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75,309,000,091

위와 같이 공고함.

2007년 3월 30일

**중흥건설(주)**  
대표이사 정 창 선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18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 경 태

### (제3기) 결산공고

#### 대 차 대 조 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잔액	과목	잔액
<b>자 산</b>		<b>부 채 와 자 본</b>	
I. 유 동 자 산	2,634,277,474	1. 유 동 부 채	280,382,883
(1) 당 좌 자 산	2,634,277,474	1. 미 지 지 급	38,504,470
1. 현 금 및 현금 동등가	3,410,831	2. 예 수	175,480,530
2. 단 기 금 융 상 품	423,816,221	3. 미 지 지 급 비 용	46,397,683
3. 미 수	255,238,680		
4. 부 가 세 대 금	1,832,171,100	<b>II. 고 정 부 채</b>	90,443,143,716
5. 선 금 비 용	15,604,192	1. 장 기 차 입 금	37,301,563
6. 선 금 법 인 세	4,136,450	2. 회 계 적 비 용	90,400,000,000
<b>II. 고 정 자 산</b>	136,412,000,145	<b>부 채 총 계</b>	90,703,526,399
(1) 주 자 산	93,870,175	<b>자 본</b>	
1. 기 타 보 증	83,870,175	I. 자 본	50,091,000,000
2. 이 차 보 증	10,000,000	1. 보 통 주 자 본	50,091,000,000
(2) 유 련 자 산	136,318,129,970	<b>II. 자 본 임 여 금</b>	0
1. 차 량 운 반 구	127,094,151	<b>III. 결 산 손 금</b>	△1,485,978,070
2. 비	40,870,000	1. 처 리 전 손 금	△1,485,978,070
3. 전 출	▲90,364,855	(당기순손실: △877,530,250원)	
4. 기 타 의 무 자 산	168,313,083,917	<b>IV. 자 본 조 정</b>	△262,270,710
국 고 보 조 금	▲32,123,000,000	1. 주 식 합 의 발행 차 정	△262,270,710
<b>자 산 총 계</b>	139,046,277,619	<b>자 본 총 계</b>	48,342,751,220

위와 같이 공고함.

2007년 3월 30일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돈 효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3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성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백 호 암

### 제기 결산공고

#### 대 차 대 조 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잔액	과목	잔액
<b>자 산</b>		<b>부 채 와 자 본</b>	
I. 유 동 자 산	16,836,832,781	1. 유 동 부 채	20,542,774,282
(1) 당 좌 자 산	11,541,845,019	1. 매 입 채	4,309,740,846
1. 현 금 및 현금 동등가	152,698,731	2. 단 기 차 입 금	14,979,372,788
2. 단 기 금 융 상 품	451,707,783	3. 선 수	10,459,377
3. 매 도 가 능 중 권	4,760,000	4. 예 지 금	13,000,471
4. 공 사 미 수	10,981,191,300	5. 미 지 지 급 비 용	1,230,900,780
5. 단 기 대 여	▲340,928,068	<b>II. 고 정 부 채</b>	3,973,235,877
6. 미 수 수 리	37,301,563	1. 장 기 차 입 금	3,412,000,000
7. 미 수 수 리	3,477,357	2. 회 계 적 비 용	561,235,877
8. 선 수 수 리	93,241,098	<b>부 채 총 계</b>	24,516,010,139
9. 선 금 비 용	61,738,947	<b>자 본</b>	
10. 선 수 수 리	15,119,080	I. 자 본	7,000,000,000
11. 선 수 수 리	77,660,370	1. 보 통 주 자 본	7,000,000,000
(2) 유 련 자 산	5,294,783,762	<b>II. 자 본 임 여 금</b>	0
1. 재	2,091,892,919	<b>III. 이 의 임 여 금</b>	12,636,963,735
2. 재	1,076,600,263	1. 기 업 합 리 화 적 합	12,700,275
3. 재	1,271,305,584	2. 인 의 적 합	677,680,903
4. 부	139,885,973	3. 처 분 전 이 익 임 여 금	12,046,702,557
5. 미	715,499,009	(당기순이익(손실) 계7기: 198,280,282원 계8기: △2,401,110,728원)	
<b>II. 고 정 자 산</b>	35,311,236,705	<b>IV. 자 본 조 정</b>	△2,084,161,005
(1) 부 자 산	13,694,709,274	1. 부 의 지 분 비 자 본 조 정	▲2,084,161,005
1. 장 기 금 융 상 품	150,859,271	<b>자 본 총 계</b>	27,631,859,347
2. 매 도 가 능 중 권	13,121,162,103		
3. 지 분 법 적 용 주 자 산	422,887,900		
4. 보	21,615,527,611		
(2) 유 련 자 산	541,214,622		
1. 보	4,766,305,661		
2. 전 출	▲1,472,906,962		
3. 구	2,393,086,694		
4. 기	▲2,226,704,791		
5. 기	30,653,135,294		
6. 기	▲18,799,975,075		
7. 기	▲238,243,942		
8. 기	▲394,081,528		
9. 기	4,270,132,744		
<b>자 산 총 계</b>	52,147,869,486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52,147,869,486

위와 같이 공고함.

2007년 3월 30일

**대한페이퍼텍(주)**  
대표이사 정 병 운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7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 경 태